

다시 푸는 경서

정혜결사문(定慧結社文) 24

以愛敬三寶淳厚心故 蒙佛威加
이에경삼보순후심고 몽불위가
能所業障 善根不退 若能如是自力他力
능소업장 선근불퇴 악능여시자력타력
內外相資 志求無上之道
내외상자 지구무상지도
則豈不具美乎
즉기불구미호

此人意雖專內照 忍力未成
차인의위수전내조 인력미성
留此穢土 逢諸苦難 恐有退失之患
유차에도 불제고난 공유퇴심지환
此內外相資二種人志願 心請聖教
차내외상자이종인지원 심해성교
皆有道理 此中求生淨土者
개유도리 차중구생정토자
於明靜性中 有定慧之功
유명정성중 유정혜지공
縣契彼佛內證境界故
현계비불내증경계고
현재피불내증경계고
望彼但稱名號 憶想
망피단칭명호 역회
緣容 希冀往生者 優劣可知矣
유용 희망往生者 優劣可知矣
이런 사람은 비록 마음을 관조하는 일
에 전념하였으나 인내력이 모자라서 더
러운 이 사바세계에 머물다가 여러 고난
을 만나게 되면 공부를 포기할 염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다. 어쨌든
인파으로 도와 수행하는 두 종류의 사람

此內外相資中 有二種人所願各異
차내외상자중 유이종인소원각이
或有悲願重者 於此世界 不厭生死
혹유비원중자 아차세계 불멸생사
自利利他 增長悲智 求大菩提
자리이타 증장비지 구대보리
所生之處 見佛聞法 以之爲願也

더러운 마음 일으키면
어느 부처가 맞아주겠는가

소생지처 견불문법 이지위원야
此人不別求淨土 亦無逢難退失之患
차인불별구정토 여무봉난퇴실지환
或有淨穢苦樂 欣厭心重者
혹유정애고락 흥염심중자
所修定慧 及諸善根
소수정혜 급제선근
回向願求生彼世界 見佛聞法
회향원求生彼世界 見佛聞法
회향원구생피세계 견불문법
速成不退 來度生 以之爲願也
속성불퇴 극래도생 이지위원야
인파으로 서로 돕는 것에도 소원이 다
른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즉 비면(悲願)
이 많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생사를 싫어
하지 않고, 나와 남을 이롭게 하며 지피
와 지혜를 더욱 늘리어 큰 보리를 구하르
로 태어나는 세상마다 부처를 뵈고 법을
듣기를 원한다. 이런 사람은 따로 정토
(淨土)를 구하지 않더라도 어려울 때에
후퇴할 염려가 없다. 다른 하나는 깨끗함
과 더러움, 괴로움과 즐거움에 대해 기
뻐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많은 사람이
다. 그는 수행하는 선정과 지혜와 모든
선근을 회향하되 저 세상에 태어나서 부
처님을 뵈고 법문을 듣고 다시는 물러나
지 않는 힘을 얻어 다시 이 세상에서 와서
중생을 제도할 것을 소원하는 사람이다.

은 마음이 모두 성인의 가르침에 일치하
는 도리가 있다. 그러므로 정토에 나기
를 구하기만 한다면 이미 밝고 고요한
성품 가운데 선정과 지혜의 공로가 있으
므로 저 부처님이 깨달은 경계와 부합되
는 것이다. 그러나 단지 부처님의 명호
만 부르고, 거룩한 형상만 생각하며 극
락왕생을 바라는 사람과 견주어보면 그
우열을 알 수 있을 것이다.
智者大師 臨終謂門人曰火車相現
지자대사 임종위문인왈화차상현
지자대사 임종위문인왈화차상현
一念改悔者 猶能往生 況戒定慧業
일념개회자 유능왕생 황제정혜업
修行道力 功不唐捐 淨名經云
수행도력 공불당손 정명경은
欲淨佛土 當淨其心
욕정불토 당정기심
지자 대사는 임종 때 제자들에게 지
욕의 불수레가 나타나더라도 한 생각
만 고쳐먹어도 극락왕생하는데 하물며
계정혜로 닦으며 수행한 도력이라면
어찌 그 공덕이 헛되겠는가 하였고, <
정명경>에는 '불토(佛土)를 깨끗이 하
려면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한다.

김원각<시인·역경위원>

가까이서 뵈 큰스님

세웅스님 상주 감장사

“어떤 일이든 욕심이 화 부른다”

오늘날 우리나라 불교계에는 입(言)이나
손(文)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존경
받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을 몸으로 실천하며 '행위의 깨달음'을 보
여주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한암 스님은
'차라리 천고에 자취를 감춘 학이 필지인
정 삼촌(三叢)에 말 잡하는 앵무새의 재주
는 배우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오대산으로
들어가 투철한 정진력으로 지금까지 수행
자의 사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요즘은
행주와 어묵동정 모두가 '산 법문'으로
귀감이 되는 수행자는 드문 현실이다.
올해 초 모 사찰 주지 스님으로부터 상
주 감장사에 수행자 본분사에 월두월미한
선승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스
님은 수행과 계율에 철저할 뿐 아니라 수
좌들로부터도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는,
이 시대의 보기 드문 '진짜 선지식'이라는
것이다. 그 스님의 법명은 세웅 스님.

작한지 50여분만에 도착했다. 부처님께 참
배하고 스님을 찾으러 두리번거리고 있는
데 한 거사가 "어디서 오셨는데 이렇게 일
찍 왔느냐"며 반갑게 맞이한다. 그 거사는
가사를 대중방으로 안내했다. 그리고 과일
과 떡을 내놓는다. 감장사에 큰스님이 계
시다는 소식을 듣고 취재하러 왔다고 조심
스럽게 말하며 감장사 스님이 어떤 분인지
여쭈었다.
10여분 동안 거사와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작업복 차림에 밀집모자를
꼭 눌러쓴 한 노인이 들어오더니 "왜 손님
들에게 음식을 그렇게 대접하세요? 다시
상을 차려 드리지요"라고 나무라시고 나
가신다. 그런데 문을 여닫는 모습이나 나
가시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다. 두 손
으로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닫았다. 어찌
나 조심스러우신지 그냥 쳐다보고 있기가
민망할 정도였다. 어떤 분인지 궁금해 거
사에게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저 분이 바로
세웅 스님이라고 한다.
세웅 스님은 예불과 기도 시간 외에는
항상 작업복 차림을 하고 계신다. 그 이유



세웅스님은 법상에서의 법문은 물론 사진촬영도 허락하지 않으신다. 사사마지 기도를 하고 있는 스님의 모습을 대중방에서 문밖으로 촬영했다.

예불·참선시간 외엔
항상 작업복차림
텃밭 일구고 절 보수

는 사찰의 모든 일들을 손수 하시기 때문
이다. 텃밭을 일구는 농사일부터 사찰의
크고 작은 보수에 이르기까지 스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다. 심지어 스님
은 몇 년 전 태양열 보일러 설치 등의 큰
작업도 직접 했을 정도다.
스님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쉬 없이 사찰
의 울림을 하다보니 늘 작업복 차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중국 선종의 청규
창시자 백장 스님의 '일일부작 일일불식
(日不作 日不食)'의 가르침을 몸소 실
천하고 계신 것이다.
문득 수십 년 전 일간지의 한 기자가 하
동 칠불암 선방에서 두문불출하는 선승을
취재하러 갔다가 만나지 못하고 되돌아왔
다는 이야기가 떠올랐다. 사연은 이렇다.
칠불암에 도착한 기자는 군불을 지피고 있
는 노인에게 "이곳에 두문불출하시는 큰

스님이 계시는데 한번 뵈려 왔습니다.
어디에 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라고 묻자,
군불을 지피는 노인은 이곳엔 그런 스님이
없으니 그냥 가라고 했다. 결국 그 기자는
스님을 만나지 못했다. 나중에야 군불 지
피는 스님이 바로 큰스님을 알고 아차
했다는 것이다.
대중방에서 나간 사람이 세웅 스님이란
사실을 알고 좇아 나갔지만 스님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스님을 다시
뵈는 것은 2시간여가 지난 사시 마치 시간이
였다.
가사장삼을 수하고 법당에 들어오신 스
님의 첫 인상은 여느 스님과 다름이 없었
다. 하지만 신도들에게 일일이 따뜻한 인
사를 나누는 스님 모습에서 부처님의 미소
와 같은 자비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 스님

이 불전을 향하자 법당에는 적막이 흘렀
다. 그 사이로 나지막한 염불이 시작됐다.
세수 77세의 노스님이기 때문에 염불 소
리가 그렇겠지 라는 생각은 선입견이었다.
스님의 염불소리는 서서히 높아지더니 법
당은 물론 계곡까지 멀리 울려 퍼질 정도
로 힘이 있었다. 젊은 사람 못지 않았다. 게
다가 스님은 이날 감장사를 찾은 30여 신
도들의 축원카드에 적힌 이름을 하나도 빠
짐없이 읽어 주셨다. 간혹 읽기 난해한 글
자가 있으면 종무를 보고 있는 보살을 불
러 확인한 후 다시 축원해 주시기까지 했다.
이러한 스님의 지극 정성으로 인해 사시
마치 기도는 여느 사찰에 비해 두 배가 걸
렸다. 신도들은 "스님은 늘 우리가 미안해
할 정도로 자상하고 지극정성으로 기도해
주신다"며 입을 모은다.
사시 마지를 마친 스님께 인사를 드리러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 동결 하였습니다



가격 동결 단행!!
● 외환위기의 우리경제에 외국산 등 수입을 막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조립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처음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조립과정이 녹화되어 있는
15분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불교 TV 제작 -
연초초벌용 8cm
초벌용위에
연동완성품
연연을 붙인 상태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조립식 팔각등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풀칠 구조에 난장으로 풀칠이 하던 등 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형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동 구조적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골조 및 인쇄걸지 합지 방식)
단 한 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4P 현우기획
전화: (02)467-1513 팩스: (016)552-9360

미수타 반도체 안전 전구
반도체 전자 인등

그옛날 미수타 여인의 마음과 같이, 정성으로 제품생산 및 시공합니다.
◎ 제품특징
○ 기존 전기적인 방법을 전자화 시켰습니다.
법당 천정에 220볼트가 아닌 저전압 5볼트로
공급됩니다. (발열이 없으므로 화재예방)
○ 0.4w 절전형 (기존 10w의 25분의1 전력 소모)
○ 설치후 전구를 교환하는 번거로움이 없음.
○ 본 제품의 가벼움과 완벽한 결선으로 법당
내부에 늘어지는 현상이 없음.
○ 인등은 수량에 관계없이 밝기가 일정 합니다.
(기존 인등의 10분의1 전력 소모)
○ 인등은 내부전압 변환 트랜스에 전혀 발열이 없음.
◎ 주문시 법당 일년동용 전구설치는 법당 규모와
등의 규격에 따라 전구의 간격이 달라지므로
전화 주시면 일차 방문하여 간격과 수량을
맞추어 드립니다.
(설치예정일 2~3주전에 전화주십시오.)
전화 : (031) 791-8871
지역대리점에 뜻이 있는 분은
전화 주십시오.
전북1. 전남1. 서울. 경기2
본 미수타 반도체 안전전구와
미수타 반도체 전자인등은 상표.
실용. 외장. 유사방지의 각각 법에
의하여 지적 재산권에 보호를 받는
제품입니다. (상표외에 총 11건)
부산. 경남 동부대리점
밀양 055-355-6707
경남. 서부대리점
011-599-8287
대구. 경북 남부대리점
경주 054-772-2667
충남대리점
017-209-9042
강원. 충북대리점
원주 (033) 764-9396